

경제

부도 위기 몰린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애타는 자금 지원 호소

“당장 정부 돈이라도 풀어달라”

협의 늦어져 정책자금 집행 차질 '발동동'

“채권단이 자금 지원을 못한다면 정부라도 돈을 풀어야 할 게 아닙니까.”

부도 위기에 내몰린 금호타이어 협력업체들이 정부 정책자금이 언제나 나올지 걱정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지원한다던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이 풀리지 않은 채 마감소식이기 때문이다.

11일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실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로부터 5개월째 결제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이 잇따라 부도 위기에 내몰리자 중소기업청이 450억원 가량의 정책자금을 지난 9일부터 풀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들 업체에 이미 집행한 15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신규로 300억 원 가량을 추가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식경제부와 협의가 늦어지면서 아직까지 정책자금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중기청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협력업체들에게 정책자금이 지원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중기청으로부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재균 의원실도 “9일부터 중기청이 정책자금을 풀었다고 했는데 확인한 결과,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채권단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이 사실상 물 건너갔고, 중기청 정책자금마저 풀리지 않으면서 금호타이어 협력업체들이 잇따라 부도 위기를 맞고 있다.

또 상당수 업체는 일감이 없어 직원들을 무급 휴직 보내거나 임시 휴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협력업체 대표는 “17일이 두렵다. 어떻게 또 어음을 막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자금 지원을 호소했다.

또 다른 협력업체 대표는 “고려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다”며 협력업체를 아랑곳 않는 금호타이어 노사와 채권단의 행태에 대해 분통을 쏘았다.

광주·전남지역 금호타이어 협력업체는 150곳, 전국적으로는 250여곳에 이른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제12차 집단협 교섭을 재개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업체들이 잇따라 부도 위기를 맞고 있다. 금호타이어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어음) 만기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또 상당수 업체는 일감이 없어 직원들을 무급 휴직 보내거나 임시 휴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협력업체 대표는 “17일이 두렵다. 어떻게 또 어음을 막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자금 지원을 호소했다.

또 다른 협력업체 대표는 “고려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다”며 협력업체를 아랑곳 않는 금호타이어 노사와 채권단의 행태에 대해 분통을 쏘았다.

광주·전남지역 금호타이어 협력업체는 150곳, 전국적으로는 250여곳에 이른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제12차 집단협 교섭을 재개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조와 연대투쟁을 선언한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11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금호 계열사 이사진 ‘물갈이’

박삼구 명예회장 등 금호일가

일부직책 물러나며 대폭 교체

워크아웃에 들어간 금호아시아나그룹 주요 계열사의 경영진이 대거 교체됐다.

그럼과 채권단에 따르면 박삼구 그룹 명예회장은 이날 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금호타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의 이사직을 모두 내놓기로 했다.

박 명예회장은 현재 금호타이어와 금호석유화학, 금호산업, 대한통운 및 아시아나항공 등 이사직을 맡고 있다.

박삼구 전 화학부 회장은 경영권을 되찾기로 한 금호석유화학을 제외하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등의 이사직을 내놓기로 했다.

그럼 전략경영본부장인 기옥 사장은 금호석유화학의 이사직을 그만 둘 것으로 알려져 금호석유화학 이사진은 총 7명 가운데 퇴진 의사를 밝힌 일부 사의 이사까지 합치면 절반가량 바뀌게 된다.

금호산업은 주총을 통해 6명

의 사내이사 중 박 명예회장과 박 전 회장 등 대부분의 기존 경영진이 사퇴기로 했고, 금호타이어도 4명의 사내이사 중 박 명예회장을 제외한 대부분이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의 등기 이사진도 운영부 현 사장을 제외한 3명의 이사들이 교체되고, 대한통운도 3명의 이사진이 모두 바뀐다.

금호 일가의 이사직 사퇴는 지난달 금호타이어는 박 명예회장이 경영을 맡고,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전 회장과 박철원 전략경영본부 부장이 공동 경영하기로 채권단과 맺은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금호타이어 및 금호석유화학과 달리 채권단 관리하에 들어가는 금호산업의 경영권은 이날 말 나올 예정인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최종 결정되며,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통운도 이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LH, 아파트 450채 매입

기초수급자에 임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는 올해 450가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

다가구주택 매입 대상은 광주지역 400가구와 목포지역 50가구다.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신청을 받아 공인감정을 거쳐 매입한다.

매입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50㎡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350만원, 월 임대료는 방 크기에 따라 5만~10만원으로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이다. 062-380-0421.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준금리 연 2.0%

한은 13개월째 동결

한국은행은 11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00%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은은 작년 3월부터 13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정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3월 기준금리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지원

올 ‘HIT 500’ 사업 추진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지역 본부는 올해 참신하고 시장성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 HIT 500’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11일부터 접수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1인 기업, 창업 초기 기업, 지역 기업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도 홍보가 부족해 인지도가 낮은 기업의 제품 500개를 발굴해 마케팅 활동을 도와주는 것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중소기업진흥공단(062-600-3021)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중소 건설업체 자금난 가중

1월 연체율 2.9% ... 타 업종의 2배

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연체율 1월 연체율은 2.9%로 전제 중소기업 연체율(1.5%)의 두 배 수준이다.

금융회사들은 건설업이 바닥을 기기 시작한 작년부터 대출 규모를 줄이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중소 건설업체의 연체율도 지난해 6월 4.1%, 지난해 9월 3.7%, 지난해 12월 2.3% 등 하락 추세였지만 올해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1월 말 현재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2.9%로 전제 중소기업 연체율(1.5%)의 두 배 수준이다.

금융회사들은 건설업이 바닥을 기기 시작한 작년부터 대출 규모를 줄이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예금취급기관의 건설업 대출금은 작년 말 현재 62조4천억원으로 9월 말에 비해 5조7천억 원 감소했다.

올해도 건설업종의 침체가 이어져 은행들은 건설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신용위험평가도 더 엄격하게 할 방침이다.

채권은행들은 성원건설처럼 문제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즉각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퇴출 여부를 결정하고 4월부터 시작되는 정기 신용위험평가에서 건설업종을 엄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대한항공·아시아나

과징금 110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저가항공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 날 전체위원회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대한항공에 대해 103억9천7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선 6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20여개 국내의 항공사들이 화물운송료를 담합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빌 게이츠, 세계 최고 갑부 내줬다

멕시코 통신 재벌에 ... 이견희 전 회장 100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전 회장이 올해 세계 최고 갑부 순위에서 멕시코 통신 재벌 카를로스 슬림에게 1위를 내줬다.

10일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2010년 억만장자’ 순위에서 530억 달러를 보유한 게이츠는 535억 달러를 손에 쥔 슬림에게 밀려 2위로 떨어졌다.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갑부는 전 세계에서 1천11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에서는 이견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72억 달러로 100위에 오르는 등 모두 11명이 명단에 포함됐다.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은 36억 달러로 249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은 19억 달러로 536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각각 16억 달러로 공동 616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본점옆,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011-609-5221
(상무지구 이비동 김사당 1층)

사원 모집
당사는 부동산 중개, 분양, 경·공에 개발 전문회사로서
사세확장에 따라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236-3400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올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권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
가건물 사실상과 언실
분 손해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
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
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
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토지매매
상무지구 1,652㎡ (500) 상업 1,100만원
상무지구 2,247㎡ (680) 상업 1,200만원
상무지구 826㎡ (250) 상업 1,000만원
상무지구 3,422 (1,035평) 업무 800만원
동산동 (22,000평) 전답 102만원
나주사동 (15,300평) 초경 352만원
동림동 4,469㎡ (1,352) 준주거 350만원

모집분야 인원 지원자격 비고
경영 여 0명 * 초보 및 경험자 월급
개발 남,여 0명 * 관련전공학과 이수자 기본급+수당
* 유 경험자
아파트 여 00명 * 유 경험자 여 실장
토지 남,여 00명 * 초보 및 경험자
싱가 남,여 00명 * 초보 및 경험자 분양 및 중개
빌딩 남,여 00명 * 초보 및 경험자 전직금융기관 근무 및 회사관리업무
경험자 우대
프랜차이즈 남,여 00명 * 초보 및 경험자 유험업근무
경험자 우대
경·공매 남,여 00명 * 유 경험자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236-3400
asset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전문가/변호사 무료법률상담/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신속한 명도/정확한 권리분석/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무방할만한 추천합니다.